

##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의 방향과 과제

‘정보윤리’ 또는 ‘정보통신윤리’를 시급히 확립해야 할 때가 되었다.

새삼스런 얘기 같지만 각종 정보통신 신기술의 발전, 확산 속도를 올바른 활용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정보통신매체의 잘못된 이용, 즉 오용사례는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미 심각한 지경에 까지 이른 경우도 적지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통신매체 활용의 역기능적 폐해나 문제점은 가정을 비롯하여 학교 그리고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신기술 정보통신매체의 급속한 발전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 소비창출을 위한 시장확대와 신기술 도입 그리고 그 확산에만 주력해옴으로서 나타나는 일종의 대가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동안 우리의 경제적 수준이나 기술발달 속도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경우도 많겠으나 결과적으로 ‘도입’이나 ‘확산’에 투자한 관심이나 열의에 비해 ‘활용’이나 ‘선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통신매체의 급속한 출현과 보급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러한 역기능적 폐해를 최소화하고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 유용한 문명의 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어떤 입장에서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용성있는 대책인가의 선택여부에 있을 뿐이다.

###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의 기본방향

우선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은 전국민적 교육운동이자 시민운동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다. 일부 관심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관계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 당위성과 실천과제를 계몽하는 수준의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들어 현재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비롯하여 각종 신기술 정보통신매체를 실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제한적인 이용기술을 교육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철이 들면서 부터 자연스럽게 말하는



김 기 태

한국방송개발원 정책연구실장

법과 읽는 법 그리고 영상언어가 혼재하는 현대사회와 같은 복합적 언어시대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정보통신언어를 올바로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송, 통신매체들이 컴퓨터와 연결됨으로써 거의 모든 정보가 하나의 화면으로 결합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이러한 종합적이면서도 전혀 새로운 언어 즉, 정보통신언어에 대한 주체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사용방법과 윤리의식을 일깨우는 작업은 중요한 시대적 해결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의 기본방향을 개괄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은 정보통신매체를 다루는데 필요한 단순한 기능이나 기술을 습득케하는 교육이라기 보다는 정보통신매체 사용의 예절과 윤리적 책임의식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영향력 등 구조적 의미까지를 깨닫게하는 '건강한 정보통신이용자의 의식화교육'이다.

따라서 그동안 전개해 온 이른바 정보화 교육의 교과내용중에 이러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의식화 교육 내용이 대폭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은 말 그대로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것의 전개방법에 따라서는 시민운동일수도, 사회운동일수도, 아니면 범국민적 교육운동일수도 있을 터이지만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일부에서 시도해 보는 소극적이고 정적인 일종의 당위적 주장이나 계몽 캠페인과는 다르게 전개될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의 대상이며 주체가 되는 셈이다.

결국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은 '교육'과 '운동'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정리할 차례이다.

첫째,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은 '정보', '통신' 그리고 '정보통신' 자체를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에다가 사회적 의미 즉 그 영향력, 문제점, 역기능적 폐해 등을 일깨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명의 이기로 활용되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후기로서의 어두운 면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육내용인 셈이다.

둘째,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은 올바른 시민의식과 인간다움을 강조하여 기술이나 매체에 인간이 지배 또는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각을 일깨우는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운동은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급증 추세에 있는 정보통신 이용과정에서의 각종 비윤리적 불상사나 사건, 범죄가 근본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문제가 발견되면 뒤쫓아 다니면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소방수적 대책이 아니라 문제의 발생원인을 먼저 제거하고자하는 예방적 대책인 셈이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불건전 정보통신사례나 문제점들을 아무리 열심히 제도와 법으로 감시하고 통제한다고 해도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셋째,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매체통합, 서비스 통합, 메시지 통합 등 종합매체화 경향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는 문자, 음성, 영상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매체 "의식화운동"이어야 하나 여기서는 일단 좁은의미에서의 '정보통신'에 한정하기로 한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영역을 참고하면 대략 그 포함범위가 설정될 수 있을 것 같다.

네째,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은 자기 자신이나 가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문제점이나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시 고발하는 실천력 배양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는 물론 개인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사회운동단체나 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운동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기존 언론수용자운동 단체들이 점차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으로의 영역확대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가정에서의 실천과제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각 가정마다 컴퓨터 보급률이 급증하는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부모들이 먼저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대상이 되고 다음으로는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당사자들이 되겠다.

여기서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컴퓨터 활용법을 일깨워주기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들은 현재 자녀의 컴퓨터 사용실태를 정확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사용시간,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컴퓨터 사용자세, 컴퓨터 사용시 몰입여부 그리고 컴퓨터 사용 이후 나타난 특이한 생활습관의 변화 등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개선이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의 컴퓨터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이전이나 관찰 이후 결과를 해석하고 대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나 단체의 협조를 얻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상담에 체계적으로 임할 개인이나 단체가 극히 적은 실정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관찰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이의 개선을 위해 가능한 방법부터 실천에 옮겨본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없이 부모의 판단만 가지고도 개선할 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점을 예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과도한 컴퓨터(PC통신 포함)사용 또는 음성 정보 서비스 이용  
: 절대시간을 정할 수는 없으나 정례적인 학습이나 휴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
- (2) 불건전하거나 불필요한 정보, 프로그램에의 노출(PC통신, 음성정보 서비스 포함)
- (3) 좋지않은 자세로의 사용

- (4) 무계획적인 사용(PC통신, 음성정보서비스 포함)

: 즉흥적으로 컴퓨터를 켜거나 생활계획없이 매달려서 자기의 할일을 그르치는 경우

- (5)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우(PC통신, 음성정보서비스 포함)
- (6) 과소비, 충동구매 등 잘못된 소비형태로 연결되는 경우
- (7) 성격, 친구관계, 이성관계, 등에 잘못된 결과를 빚는 경우
- (8) PC통신 사용시 올바른 언어, 예의바른 문장 등이 아닌 상스러운 말이나 어법에 전혀 맞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 (9) 독서나 학습행위 또는 가족간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
- (10) PC통신 사용시 불건전 내용이나 불필요한 내용이 나올 경우 전혀 개의치 않는 불감증적 태도

: 잘못된 내용에 대해 분노하거나 문제를 지적하여 신고, 고발하는 감시자세가 필요한 태도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미 공범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으나 줄이기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가정에서의 대책을 개괄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어느 정도 부모의 컴퓨터 지식이 우선 필요하다.  
: 건강한 컴퓨터이용을 위한 대책마련은 가족 모두의 문제이고 따라서 그 해결책도 가족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마련될 수 있음
- (2) 단순한 컴퓨터 사용기술과 같은 지식 뿐 아니라 근본적인 정보통신윤리 확립과 그 실천과제에 대한 의식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부모를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필요한 교과과정이나 교재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때임.
- (3) 컴퓨터 중독이 되어버린 어린이에게는 해독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직접 경험의 확대, 독서, 편지쓰기, 가족간 대화시간 확대, 놀이개발, 공동사용 등

(4) 불건전 정보통신 사례 발견시 적극적인 감시, 고발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의식을 강조하고 실제 고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고발할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는 준비자세가 필요하다.

(5) 호기심이나 반발심 등으로 불건전 정보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마약중독이나 약물중독과 유사한 폐해로 이해시키고 강력하게 근절을 위해 모든 가족이 노력해야 한다.

(6) 건전하고 절제있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도와준다.

가족구성원이나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참고하여 자기 가정에 알맞는 대책을 세워 실천에 옮겨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게 방치해온 정보통신매체 이용실태를 주체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정도 정보통신윤리의식이 생겨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학교에서의 실천과제

학교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실시 중에 있는 이른바 컴퓨터 교육내용안에 반드시 정보통신윤리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먼저 교사대상 교육, 학부모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이나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교과과정과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우선은 현재의 컴퓨터교육을 보완하는 형태로 실시하되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정보통신윤리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정보통신매체교육(또는 미디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의 경우 정규 교과과정 외에 불건전정보를 감시, 고발하는 동아리 활동 등을 육성하여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건전정보통신문화가 형성되도록 도울 필

요도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될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과과정이나 교재 등이 개발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그 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을 몇가지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통신윤리의식은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토론과 발표를 통해 스스로 체득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이다.

둘째,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신들의 정보통신매체 이용실태를 스스로 관찰하게 하는 내용과 그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문제점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내어 그 해결을 위한 실천사항을 자신들이 추출하도록 돕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컴퓨터 사용에 능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은 프로그램 만들기 대회를 반별, 학년별, 학교별로 시도할 수도 있다.

다섯째, “나와 컴퓨터”, “컴퓨터는 무엇인가?” “내가 컴퓨터회사 사장이라면”, “부모님과 컴퓨터” 등의 제목으로 작문을 하게하여 스스로의 이용실태를 돌이켜보게 할 수도 있다.

여섯째, 정보통신매체 전반에 대한 현황과 미래 그리고 그 사회적 영향력과 의미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장단기 교육계획안이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관계부처나 기관이 공동으로 교과과정이나 교재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논의되고 있는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과 연계 또는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에서의 실천과제

여기에서의 사회란 사회운동단체나 시민운동단체로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기정과 학교에서의 대책이 주로 ‘의식화교육’과

‘습관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다면 사회에서의 대책은 주로 ‘감시운동’과 ‘조직적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약하면 불건전정보 퇴치를 위한 시민운동인 셈이다.

따라서 기존 언론수용자운동단체의 활동사례를 분석하여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에 알맞는 형태로 응용,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적으로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겠고 기존 운동단체에서 하나의 분과나 세부조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겠다.

기존 단체 중에서는 서울YWCA가 몇년 전부터 컴퓨터게임 모니터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에서는 올해초부터 HiTEL에 <시청자옴부즈만>을 개설하여 전자게임, CD-롬, PC통신에서의 불건전 사례를 고발받는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외에 방송관련 위원회나 운동단체들은 아직 정보통신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고발 창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보통신매체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존 언론수용자운동단체들이 행하는 기본 교육이나 모니터 훈련 프로그램 등에 역시 정보통신 윤리 확립을 위한 내용을 덧붙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언론수용자운동은 주로 종교단체, 시민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각종 전문직종이나 특수목적단체로 세분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정보통신윤리확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참고해 볼만한 현상이라 하겠다.

예컨대, 각 대학의 정보통신관련 학과나 동아리도 중요한 몫을 담당할 수 있겠고, 현재 PC통신의 여러가지 동아리들도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단체나 소비자운동단체들의 조직이나 운영상황 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정보통신윤리 확산운동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자발적인 국민적 교육운동이자 시민운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정보통신매체 도입을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정부관련 부처와 이를 통해 수입을 얻는 관련 기업도 해야할 일이 많다.

좋은 소비자가 좋은 상품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사용자가 좋은 언론을 가질 수 있듯이, 좋은 정보통신매체 이용자가 결국 좋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명제를 서비스 제공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식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명제들이 사용자들의 주관과 이익을 위한 권리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쟁취지향적인 내용이라면 이제는 국민복지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정책차원의 선언이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마케팅 차원의 책임있는 기업윤리 선언이어야 한다.

신기술 정보통신서비스를 도입하는데만 열중하고 건전한 정착에는 무관심하거나, 가까운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결국은 사용자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파괴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지탱해가는 전근대적인 기업경영자세는 이제 용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전환을 기초로 하여 관련법규나 제도의 순발력있는 제, 개정이 국민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불건전정보통신의 퇴치를 위한 심의나 제재장치들은 엄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매체의 서비스를 제공받던 ‘수용’의 시대에서 주체적으로 선별하고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이용’의 시대로 우리의 매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이 글을 마친다. ●